Entertainment p/18
뱀파이어'에 꽂힌 문화계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Sports p/20
'막내' KT 시범경기 첫승
자기네는 쏙 빠졌네
법조 비리가 더 심각… 김영란법 애초부터 관심없어
"민간적용 합헌이면 변호사부터 포함시켜야"
조현아 美 법정에도 서나 p/23
선입금·고수익
신학기 알바 조심 p/22
"살풀이나 하자" 순수의 시대 강한나 p/17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

김영란법, 법조비리엔 애초부터 무관심

닮은꼴 브로커검사법, 2년 넘게 상임위 심사 상정조차 안돼
변호사법 개정도 곳곳 암초… 김영란도 원안에 넣지 못해

법조계는 끊이지 않는 비리로 안팎에서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입법 과정에 개입된 이들은 법조계의 비리에 대해 무지했을까. 아니다. 김영란법 원안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대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남편은 검사 출신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법조계 비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역시 법조계 출신이 많다. 핵심적 역할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변호사 출신의 위원장은 물론이고 검·판사 출신의 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종 결과는 변호사 대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됐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자들과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의 부패 문제가 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의 부패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일까.

2012년 12월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른바 '브로커검사법'이라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직 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 넘게 법사위 심사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많다"며 "우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고 검찰청을 비롯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고 국민적 (지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등 3박자가 맞아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면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회는 그 동안 여론이 들끓을 때는 개혁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황이 지나가면 법안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서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19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정안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동 법원가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신들의 밥줄을 건드리는 법안에 반대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청의 검사나 법원의 판사 역시 공직을 떠나면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소극적"이라고 했다.

브로커검사법보다 넉 달 앞서 원안이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당초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브로커검사법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론의 압박이 없었다면 묻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서강대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이 자리(국회 통과)까지 온 건 기적같은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한계를 드러냈다.

/송병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핵과학자회보, 북핵무기 '0개→10개미만'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가 북한의 보유 핵무기 숫자를 '10개 미만'으로 추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존 맥클린 편집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맥클린 편집장은 이날 "정보가 부족해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를 '0'으로 표시해왔으나 '10개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과학자회보는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 주도로 70년 전인 1945년 창간된 전문지다.

핵과학자회보는 2009년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한 9개 나라에 포함시켰으나 핵무기 숫자는 0으로 기록한 채 세 차례 핵실험 연도만 표기해왔다.

핵과학자회보의 추정치 변경은 미국 과학계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셈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맥클린 편집장은 "숫자 변경은 소속 전문가들의 추정을 단기적으로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난 만큼 (핵무기 보유량) 그래프의 북한 부분 묘사도 조만간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클린 편집장은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무기화로 연결시켰는지 등을 보여주는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어서 실태를 정확히 답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10개 미만' 숫자에도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야한다는 단서가 달린다"고 덧붙였다. /정윤아기자

롱보우 아파치 시승하는 국회 국방위원장과 간사 국회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가운데), 송영근 여당 간사(오른쪽)가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키리졸브 훈련을 참관한 뒤 롱보우 아파치(AH-64D)를 시승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 성추행 의혹 외교관 대기발령조치

외교부는 국외 출장 도중 한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의 요청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 문제가 된 직원(상급자)을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달 과장급 공무원인 이 상급자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가 귀국 전날 자신의 숙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국자는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관련 교육과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업무 특성상 야근과 해외출장이 잦아 이번 사건과 같은 성 관련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공개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문제는 외교부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6@

사드 공론화 가능할까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사드배치 추진하는 새누리당 규탄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사드배치 중단'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青 '3NO'… 사드 공론화 반대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 부정적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1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가 마크 리퍼트 미 대사 피격 사건 이후 사드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대리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라고 표현한다"며 "노 리퀘스트(no request), 노 컨설테이션(no consultation), 노 디시전(no decision)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침묵해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드 공론화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일부인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의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 같은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바 있다. 우리 국방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모두 중국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우리 측은 사드 배치 논의를 최대한 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의제로 꺼내들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비박계 지도부의 사드 배치 공론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엿보여 논란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윤정原기자 yaona@metroseoul.co.kr

군, 성폭력 묵인·방조하면 가중처벌

국방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 방관자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은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시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고충상담관을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정부부처 협업과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성폭력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아기자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일랜드 축제

metro Russia

러시아 한복판에서 아일랜드를 만끽하는 축제가 열린다.

10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스크바 곳곳에서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데이 축제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주모스크바 아일랜드 대사와 모스크바 시 정부 협의로 준비됐다.

축제는 아일랜드 영화제로 시작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동안 러시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일랜드 영화 30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모스크바 아일랜드 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제 수상작 8편이 상영되며 아일랜드 출신의 감독과 배우들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4일에는 성 패트릭 데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성 패트릭 퍼레이드가 개최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초록색 모자와 의상을 입고 흰색·초록색·주황색을 이용한 페이스 페인팅 장식을 하게 된다.

성 패트릭 데이 축제는 밤에도 참가할 수 있다. 모스크바의 한 클럽에서 진행되는 성 패트릭 데이 앤 나이트 행사는 8시간 동안 계속되는 아일랜드 음악 공연으로 아일랜드 포크메탈 그룹과 유명 밴드 등이 참여한다. 모스크바 아일랜드 코미디 페스티벌 역시 성 패트릭 데이 축제에서 빼놓지 않고 봐야 할 공연이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아일랜드 스타일의 스탠드 업 코미디는 모스크바 관객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할 전망이다.

/알렉세이 쉬리갠 기자·정리=정은희기자

대사 경호요청 봇물… 일본대사는 근접경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후폭풍이 종북논란 외에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1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각국 대사에 대한 경호 요청이 8개국 정도에서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직후 주한미국대사와 배우자에게 '외빈 경호대'를 투입해 24시간 근접경호를 하고 있다. 또 주한일본대사의 외부 활동에도 근접경호 요원을 배치했다.

강 청장은 "외국공관 등 시설 위주 보호에서 외교관 신변 보호까지 경호·경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교관 측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 273개 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발령하고, 경찰 병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시설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며 "리퍼트 대사가 습격을 당한 민화협 행사처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호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씨에 대해서는 "압수한 증거물의 이적성을 심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의 최근 행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참석의원들은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각 경찰서의 '5분 타격대'가 현장을 즉시 장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주한 외교사절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혀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병철기자 bhsong@

축구·탁구·농구 기량 겨루는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개막

대학 동아리부터 조기 축구회 부부 등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해 기량을 겨룰 수 있는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가 다음 달 열린다.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서울 시민리그는 25개 자치구 단위 지역 리그, 본선 토너먼트, 최종 챔피언전 순으로 진행된다. 종목은 축구, 3대 3 농구, 탁구 등 3가지다.

시는 홈페이지(www.sleague.or.kr)를 통해 18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종목별로 참가 연령과 선수 경력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참가 팀당 1만~5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한다.

60대 이상이 참가하는 탁구 종목은 팩스(☎02-380-8899) 또는 우편(서울시 생활체육회, 문의 ☎02-380-8822) 접수도 병행한다.

서울시민리그는 기존 생활체육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동호회, 가족 등 팀 단위로 누구나 출전할 수 있다. 또 주말이나 주중 야간에 집 근처 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진행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역리그는 참가한 모든 팀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대전하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당 승점 합산을 통한 각 종목의 1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특히 본선 토너먼트와 챔피언전은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프로 선수들이 뛰는 대형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Seoul Citizens' Sports League opening next month soccer·table tennis·basketball and general sports

Any Seoul citizens from university sports clubs, amateur soccer clubs or even couples who love sports can participate in the Seoul citizens sports league and show what they've got. The competition is opened until November for 8 months and 25 autonomous districts are participating in this league. This competition determines the final champion by opening tournaments between those districts. The event is composed soccer, 3·3 basketball and table tennis match. Seoul is receiving registration online from the 18th ~ 31st at www.sleague.or.kr. Age may be limited depending on

홈페이지 캡처

the sports and every participating team must pay 10,000 ~ 50,000 won for the registration fee. Anyone above 60 who wishes to participate in the table tennis match, they can register through fax 02-380-8899 or through mail Seoul General Sports organization 02-380-8822. In this Seoul Citizens' League, participants don't have to be a member of the General sports organization, but anyone from

an their clubs or even in families. No matter how small the team may be in a district league "Full League System" is applied. This means all participating teams get the chance to play at least one time. Every sport adds up the total score and chooses a winning team and they are the ones to enter the final tournament. Especially, the final tournament and the champion game is held at sang Am World cup stadium where professional athletes hold their competition.

/파고다어학원 [illegible] Clyne Kim[illegible] 강사

메르켈에 박수치는 獨 언론

"아베 과거사 지적 노련했다" 방일 성과 긍정적 평가

아베 총리에게 과거사 직시를 압박한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일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의 방일을 마친 메르켈 총리가 노련한 대일 외교와 과거사 직시 발언으로 인지도가 상승했다. 독일이 일본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지만 독일의 성숙한 과거사 대응을 보여줬다는 진단도 나왔다.

독일 벨트지는 메르켈 총리가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을 비중있게 다뤘다. 일서 기쓰에 대표가 "종전 70년을 맞이하지만 중국, 한국과 화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메르켈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화해가 중요하다. 군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벨트지는 메르켈 총리가 일본 야당 대표와의 대화에서 군위안부 문제 해결까지 거론할 정도로 민감한 소재에 대해 잘 소임을 다했다고 평했다.

디 벨트는 '메르켈 총리의 평화 메시지'라고 제목 붙인 기사에서 메르켈 총리가 "과거사 청산이 화해의 전제다. 화해의 주체는 언제나 두 당사자"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메르켈 총리가 각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게 독일의 경험을 말해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의 아사히신문 주최 연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화해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메르켈 총리가 연설 장소로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는 아사히신문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암묵적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영토와 과거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을 것"이라며 "그는 일본에서 이 문제를 아주 노련하게 해결했다"고 진단했다.

/정윤희기자 [illegible]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우린 아직도 모른다" 멕시코 실종 대학생 43명의 가족들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최대 민영 TV방송사 텔레비사가 실종 사건을 축소 보도했다고 비난하며 시위행진을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동일본대지진 4주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4주년인 11일(현지시간) 후쿠시마현 나미에 길가 꽃다발이 놓인 추모석 앞에서 노부부가 희생자들을 기리며 합장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발생한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으로 1만8000명의 사망자와 258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22만8863명이 아직도 피난 생활 중이다. /AP 연합뉴스

'꿈의 실업률' 성큼… 美 금리 올리나

연준 6월 인상설 확산… 내주 FOMC '인내심' 촉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오는 6월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이 거의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조기인상설'이 힘을 받고 있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2월 미국 실업률은 전달보다 0.2% 포인트 떨어진 5.5%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5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준이 경제 전망에서 '완전 고용 상태'로 간주한 실업률 5.2~5.5% 범주에 다가간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로 전망됐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6월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7~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설명하는 성명에서 '인내심'(patient)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내심'이 빠진다면 다음 차례인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실제로 연준은 11년 전인 2004년에도 5월 FOMC 회의 때 '인내심 발휘'라는 표현을 없앤 뒤 6월부터 1%였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유가하락 달러 강세도 주목해야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과 달러화 강세로 연준이 쉽사리 정책 변경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건으로 최근 10개월 간 최고치까지 상승한 것도 연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실업률 하락과 고용 확대가 연준이 원하는 대로 임금 근로자의 소득 상승이나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의 전일제(풀타임) 전환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OANDA의 크레이그 얼람 선임 시장분석가는 "6월이건 9월이건 연준 금리 인상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도 머지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윤종규號, 경영승계 계획 또 보류

KB사태 장본인 박지우 부행장 KB캐피탈 내정 등 곳곳 '암초'

지난해 KB사태를 빠르게 게정비하며 순탄한 행보를 보인 윤종규(사진)號가 새로운 '암초'에 부딪혔다. 정치권 등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경영승계 개선방안이 또 통과되지 못한 것.

11일 KB금융그룹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고 경영자(CEO) 경영승계 계획안 논의했지만 가결시키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이사회 이후 재논의 한 것이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계획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 구성되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KB금융은 지난해 정치권 낙하산 등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배구조 개선 TFT를 가동해왔다.

이중 차기 회장 선임 시 현 회장에게 연임 우선권을 주는 CEO 승계 계획안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겸 KB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외압을 적극 거부해왔다.

그는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국민은행 사장직 부활에 대해서도 하마평에 오른 전 국회의원을 거부했다. 정치 활동이 활발한 영남 출신의 퇴임 임원도 선임하지 않았다. 국민은행 감사 자리도 비슷한 이유로 3개월 동안 공석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안에 보류됨에 이어 지난 5일에는 KB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박지우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KB캐피탈 사장으로 내정됐다. 박 전 부행장은 오는 26일 KB캐피탈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당초 이 자리에는 지주 임원이 내정돼 있었으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가 열리기 직전 박 전 부행장으로 후보가 바뀌었다.

박 전 부행장의 복귀는 지난해 KB사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지 불과 2개월 만이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 외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의 핵심 축으로, 윤 회장에게는 외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우리은행이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KB도 정치권의 눈을 피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취임 시 임직원에게 약속한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경영승계 계획에 대한 회사 내·외부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류 결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해 회사의 발전과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서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80.63	(-3.84)
코스닥	618.61	(-2.38)
금리	1.91	(-0.03)
환율	1127.20	(+2.20)

수출입은행·한화 금융 협력 MOU

한국수출입은행은 10일 한화그룹과 전략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외진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덕훈 수은 행장과 금춘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영표 수은 부행장과 김성수 한화그룹 CFO 전무가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수은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유화·화약·방산·태양광사업, 해외건설·플랜트사업, 첨단소재·서비스사업 등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두 기관은 지분 참여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 교환, 유망사업 공동 발굴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례적 협의채널도 가동키로 했다.

이덕훈 행장은 "향후 유화·방산 부문과 태양광산업 등 신성장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한화그룹이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은이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석기자

사진 거장 작품 만나보세요~

현대카드 전시회 개최

과거와 현대의 사진 거장들이 책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인다.

11일 현대카드는 어퍼가르트 사진 전문 출판사인 '어퍼처'를 주제로 '어퍼처 리믹스-사진거장들과 대화(Aperture Remix)' 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1일까지 가회동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어퍼처가 지난 2012년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엄선한 9명의 현대 사진작가 작품이 선보인다.

현대 작가 9명은 어퍼처의 출간물 중 자신의 작업에 영향을 준 과거 거장들의 사진집을 선정, 재구성했다.

한편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이번 전시를 흥미롭게 즐기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와 당대 거장 사진가들의 북컬렉션도 마련했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관계자는 "현대적인 예술 장르인 사진을 가장 오래된 매체인 책을 통해 조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1층 전시공간에서 열리며 관람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고객은 리셉션 데스크에 현대카드와 신분증 제시 후 입장하면 된다. /채명기자

KB국민카드, 봄맞이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는 11일 가족 단위 나들이 고객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2015 봄맞이 이벤트'를 벌인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제공

기술금융 신용대출액 7개월동안 70배↑

금융당국, 은행권 실적 줄세우기에 빈작용 우려도

기술금융 신용대출액이 7개월만에 무려 7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잔액기준 기술금융 대출 건수와 실적은 각각 2만1373건, 13조50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한달에만 2조7583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기술금융 대출이 도입된 작년 7월 실적(456건·1922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만 70.25배 확대됐다.

기술금융이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별 실적을 혁신성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출확대를 유도해왔다.

이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기술력을 판단해 내준 대출액은 작년 7월 399억원에서 2월 말 현재 9조9823억원으로 323배나 늘었다.

실적 압박을 받은 은행권이 단기간에 대출을 늘리는데 집중한 결과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대출도 764억원에서 1조7556억원으로, 온렌딩 대출(중기 지원 정책자금)은 850억원에서 1조7654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2480억원이던 은행 자율 기술신용대출이 3개월만에 1조4745억원으로 5.9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조724억원에서 1조7895억원으로 늘었고 우리은행도 5923억원에서 1조2861억원, 하나은행은 6346억원에서 1조281억원으로 각각 대출을 확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실대출 등 부작용과 기존 거래기업에만 기술금융 지원이 몰리는 등 빈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순위를 매기고 금전적으로도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 과열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혁신성 평가는) 담보위주의 관행을 바꿔보자는데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취임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an011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금표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0년 5월 31일 창간·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0036

<기존 고객>

계좌이동제 앞둔 은행권, '집토끼' 지켜라

금리·수수료 혜택 등 주거래 고객 우대 강화

오는 9월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주거래 고객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기존 고객에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강화하는 등 주거래 고객을 위한 우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저금리기조 금융사간 경쟁에서 금리와 수수료 등 고객 혜택을 늘어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계좌에 연결된 급여이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내역들을 별도의 신청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좌이동제 도입 계획을 당초보다 넉달 앞당긴 오는 9월 시행키로 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계좌로 편하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집토끼(기존 고객)를 지키는 동시에 산토끼(신규고객)도 뺏어와야 하는 두가지 임무가 떨어진 셈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는 입출식 통장과 신용카드, 신용대출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우대혜택 조건을 단순화했다.

고객은 ▲급여나 연금이체 ▲관리비와 공과금 등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계좌 등 세 가지 소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과 예금 잔액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등급별로 보유 상품수를 늘리거나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했다.

고영배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장은 "우리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시는 고객에 대해 이용조건은 쉽게, 혜택은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입출식 통장과 신용카드, 신용대출 위주로 만든 상품들"이라며 "향후 주거래 고객이 꾸준히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계좌 만기가 21년인 'IBK평생든든자유적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최초 1년 만기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또 재예치 시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올 초 전국 영업점장 전략회의에서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평생고객화는 IBK가 1등 은행이 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며 "이를 위해 고객의 상황별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S금융지주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어디서든 상호 통장 정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 고객은 은행 창구나 통장정리기, 자동화기기를 통해 상호 자유롭게 통장정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BS금융 관계자는 "양 은행 상호 통장정리가 가능해지면서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 양 은행은 공동상품도 출시해 한층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협은행은 업계 동향을 주시하며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TF를 구성해 상품과 다양화를 마련하고 있다.

/채신화기자 csh0033@metroseoul.co.kr

2월, 가계의 은행 대출 566조

주담대 증가로 역대 최대 상승폭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올 2월 가계의 은행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6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한 액수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대출액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이 기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3조6000억원으로, 한 달새 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액은 종전 최대(2009년 2월 3조1600억원)보다도 1조1000억원이 많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한 688조4000억원을 보였다. 이 기간 대기업 대출은 1000억원 줄어든 반면 설 자금 수요와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확대로 중소기업 대출은 4조9000억원 늘었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물량이 5조원에 달한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순상환됐다. 20일 만기 기업어음(CP)은 2조4000억원 순발행됐다.

정책금융공사채의 은행채 편입효과를 제외한 2월 말 은행 수신 잔액은 전달보다 10조3000억원 증가한 128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신잔액 증가는 설 상여금 등 여유자금이 대거 유입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4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했다. 하지만 정기예금은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의 자금유치 노력이 약화되면서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7조7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자산운용사 수신 잔액도 407조8000억원을 기록, 전월보다 11조2000억원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월간 증가폭이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다. 일부 연기금 자금이 유입된 채권형펀드 증가액은 59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신종펀드 증가액은 1조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술금융 활성화 MOU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산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창조경제 지원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유윤상 전국은행연합회 상무와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선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장. /은행연합회 제공

'하이 실적포커스 30' 펀드 어때요?

하이투자증권, 안정적인 채권운용 실적 우량종목 투자

국내 경제가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2%대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는 적절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국내외 증시의 등락과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글로벌 이벤트로 인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금 손실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시중금리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낮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자산의 상당부분을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면서 자산의 일부는 실적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하이 실적포커스 3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를 추천한다.

국내 주식을 펀드 순자산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데, 주로 시장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하이 실적포커스 30 채권혼합형 펀드'는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운용방식은 철저히 지양하고, 100% 바텀업(Bottom-up) 관점에서 개별 기업만을 보고 투자한다. 또 25~30개 내외의 전략투자로 벤치마크 대비 차별화된 수익을 추구하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차익실현 기준과 손절매(로스컷) 기준을 적용해 개별종목의 투자위험,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가능성있는 너, 나의 열정,
Tadi가 너의 미래를 만든다

"인위적 인력감축 않겠다"

김병헌 LIG손보 사장

김병헌(사진) LIG손해보험 사장이 최근 보험업계에 일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11일 LIG인재니움 수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5년 경영포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폭적인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보다는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험과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구성원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조직과 동료에 대한 믿음"이라며 "올조 실적 호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2015 사내 경영포상'은 지난 한해 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 조직과 구성원들을 시상하는 행사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02개 조직과 개인포상 54명, 특별포상 12명 등 총 168명이 선정됐다.

/김형석기자

증권주만 봄바람 부나?

은행·보험주 약세 ·증권주 상대적 약진

금융주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증권주엔 잔잔하게나마 봄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올해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증권주도 덩달아 강세 행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사와 보험사 등 금융주는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금융업종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22.33까지 떨어졌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 9일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올 들어 16% 하락해 10만원을 밑돌고 있다. 11일 기준 삼성생명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15% 하락한 9만5500원에 마감됐다. 삼성카드 역시 1년새 최저 수준인 3만5150원을 기록 중이다.

반면 증권주는 연초 증시 가산에 탑엽어 진고점을 넘어섰다.

종목별로는 업종 대표주 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올 들어 각각 11%, 16% 가량 올라섰다. 대부분의 증권주도 반등하며 지난 2~3년간의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다. 1분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3% 증가했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6%포인트 늘어진 65%로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주의 약진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증시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금리 하락으로 채권운용 실적도 호조를 보인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금리 동향 등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선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더욱이 보유 채권이 늘어난 것도 증권사들의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증권사들의 채권 보유잔액은 157조원으로 1년 새 2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6개 증권사의 단기매매, 매도 가능 증권계정에 편입된 채권이 56조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증권주 통찰에 핵심은 변동성 관리"라며 "증권사 수익성은 바닥을 지났지만, 큰 폭의 부침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매수' 투자의견을,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선 '중립'을 각각 유지했다.

/이상기기자 mini@metroseoul.co.kr

10대그룹 총수 배당금 3천억원대 '역대 최대'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의 지난해 분 배당금이 3000억원대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 10명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 상장사들로부터 받을 2014년 결산에 따른 배당금은 모두 32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배당액 2439억원과 비교하면 860억원(35.3%) 늘어난 수준이다.

10대 그룹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두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등이다.

10대 그룹 총수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배당금 규모가 1758억원으로 10명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넘는다. 이 회장의 배당금은 2013년 1079억원보다 679억원(63%) 증가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1년 전보다 56% 가까이 늘어난 742억원의 현금배당을 받게 됐다.

10대 그룹 총수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당금 증가율이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높다. 조 회장이 그룹 계열 상장사들로부터 받을 배당금은 9억5000만원으로 2013년 2억1000만원의 5배에 육박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배당금도 각각 329억7000원과 94억1000만원으로 각각 15.4%, 32.8% 증가했다.

/정민지기자

유로화 가치 12년만에 최저치 유로가 달러화에 대해 근 12년래 최저치로 추락했다. 10일(미국시간)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1.0%의 달러까지 떡락했으며, 이는 2003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연합뉴스

대신證 크레온, 시각장애아동들에게 점자책 선물

대신증권 크레온이 시각장애아동들에게 점자 동화책을 선물한다.

대신증권 크레온은 11일 런칭 4주년을 기념해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동화책을 선택해 내용을 입력하면, 크레온이 점자책으로 만들어 시각장애아동에게 전달하는 '세상을 밝히는 크레온-북 릴레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책 보급률이 낮다는 점에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크레온이 런칭 4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참가자는 크레온-북 릴레이 홈페이지(http://creonbook.com)에 접속해 하루에 세 번까지 동화책의 내용을 한 줄씩 입력할 수 있다. 입력이 완성된 동화책은 한 권의 점자책으로 점역되고 완성된 총 10종의 점자 동화책은 시각장애아동들과 관련단체에 기증된다.

프로젝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태블릿PC, 이어폰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런칭 4주년 기념 이벤트로 준비된 '크레온-점자 배우기 릴레이'와 '크레온-앱 다운로드 릴레이'도 추첨을 통해 LED 모니터, 백화점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정민지기자

경남기업 건설경기 침체로 자본잠식

남광토건, 신일건업에 이어 경남기업이 건설경기 침체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경남기업에 자본 전액 잠식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경남기업은 이날 오전 지난해 당기순손실 2657억9968만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로써 경남기업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92억6936만원으로 돌아섰다. 직전연도 자본총계는 1071억5521만원이었다.

다만 경남기업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채권단에 자본잠식 해소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는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채권단 역시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신규 자금지원 등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에 대한 은행별 총 채권비율은 신한은행 15.9%, 수출입은행 13.6%, 우리은행 12.9%, 서울보증보험 9.7% 등이다.

업계는 최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건설사의 잇단 자본잠식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51년 설립된 경남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순위 24위의 중견건설사다. 국내에서는 경남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연면적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베트남 랜드마크72'를 완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박선옥기자

한화, 항공기부품 '글로벌 비행'

클래버햄사와 1000억원 규모 수출계약…랜딩기어 등 사업다각화

㈜한화는 10일(현지시간) 세계적 항공업체인 UTAS그룹 – Claverham사와 약 1억 달러(한화 1058억원) 규모의 항공기용 유압장치 장기공급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기존에 개발 완료된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양산사업과 개발 중에 있는 신규사업 예상물량을 포함한 계약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UTAS 본사에서 이뤄진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화 기계부문 김연철 대표가 참석했다.

이 계약은 ㈜한화의 기술력과 UTAS사와 장기간 사업파트너 관계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업체가 공급하기 어려운 정밀 가공품 위주의 장기공급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안정된 수익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는 UTAS사를 통해 미국 보잉사(Boeing)의 B787항공기,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Augusta Westland)의 AW139헬리콥터, 미국 시코르스키사(Sikorsky Aircraft)의 CH53K 헬리콥터 등 세계 주요 항공기·헬리콥터에 유압장치 구성품을 독점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기종들은 세계적 베스트셀링 기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화가 2011년부터 양산에 참여해 온 보잉의 B787은 지속적으로 생산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압장치 구성품의 공급물량 확대가 예상된다.

㈜한화는 UTAS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항공엔진·랜딩기어 등으로 사업품목을 다각화하는 한편 보다 향상된 인지도를 발판 삼아 세계 메이저 항공업체들과의 사업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승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김연철 ㈜한화 대표(사진 앞줄 오른쪽)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UTAS사 본사 사무실에서 UTAS 관계자와 항공기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화 제공

효성, 프랑스 파리서 '탄소섬유' 선보인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JEC 유럽 2015'에서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인 '탄섬'을 선보인다.

효성은 10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JEC 유럽 2015'에 탄소 강소 기업인 동우 인터내셔널, ㈜볼스원 신소재와 함께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탄섬'의 우수한 품질과 기능성을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탄소 강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탄소밸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탄섬을 적용해 선보인 차세대 콘셉트카 '인트라도'의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illegible] 공동으로 '2015 혁신상(JEC Europe 2015 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효성의 탄섬이 적용된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컨셉카 '인트라도'가 이번 상을 수상하게 돼 탄소섬유 생산자로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국내 강소 기업과 상생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라기자 [illegible]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복합재료 전시회 'JEC 유럽 2015'에서 효성은 자체개발한 탄섬을 활용해 만든 차량인 인트라도를 전시했다. /효성 제공

한국지엠, 태양광으로 4600 가구 1년 쓸 전기 만든다

한국지엠주식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말 창원공장에 11.5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최근 전력생산 및 공급을 시작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창원공장 내 15만5000㎡ 넓이의 건물지붕과 주차장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면을 활용한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시설과는 달리 평소 사용하지 않는 지붕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장소를 활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인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창원공장 내 건설된 발전시설은 11.5MW급 발전 시설로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사업이 진행됐다. 연간 1만4000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7200톤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5MW급 태양광 발전소의 연간발전량인 1만4000MWh는 4600 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다. 한국지엠은 국내 다른 공장에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태양광 발전 시설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지엠은 연료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높은 수준의 자원재활용, 매립폐기물이 없는 친환경 생산시설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해왔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라기자

한국타이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선정

대한민국 상위 50개 브랜드 중 24위 선정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5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 2015)'에 3년 연속 선정됐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9090억 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상위 50개 브랜드 중 2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뒀다. 이는 국내 타이어 기업으로는 유일한 수상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타이어와 함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가 선정됐다.

한국타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3대 명차를 포함한 전 세계 25개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의 S-Class에 이어 New E-Class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기술력의 척도로 불리는 3세대 런플랫 타이어를 메르세데스-벤츠 C-Class와 BMW 뉴 미니에 공급하고 있다.

독일의 DTM(Deutsche Tourenwagen Masters)을 비롯한 전세계 40여 개 모터스포츠 대회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등 기술력과 품질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Top Tier 브랜드 기업으로서 인지도 강화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대제철 사내이사 재선임 난항 예상

주총 안건 분석업체 '서스틴베스트' 재선임 반대 권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현대제철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는 분석이 나왔다. 주주총회 안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과 계약을 맺고 주총 안건을 분석·자문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의 반대 권고가 실제 기관투자가들과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오는 13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안건에 반대를 제안했다. 정 부회장의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과도한 겸임을 사내이사로서 부적격한 이유로 꼽았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등의 계열사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아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 부회장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됐다.

이 외에도 서스틴베스트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현대이노션, 2014년 현대엔지니어링에 흡수합병된 현대엠코 등이 현대자동차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로 판단된다며 이 회사들의 최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기업 가치 훼손을 문제 삼았다.

서스틴베스트는 정 부회장이 현대차, 현대제철, 기아자동차 등 6개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과도한 이사 겸임도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측은 정 부회장의 재선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상태"라며 "단순히 겸직을 이유로 재선임에 실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현대모비스의 이사 선임 안건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시를 통해 이우일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을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로 올렸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후보의 과도한 겸임으로 인한 직무 태만을 우려했다. 이 후보는 현재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감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사와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현대제철 지분의 7.01%를 소유했다. 기아차(19.78%),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11.84%)의 뒤를 잇는 3대 주주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율이 5.08%로 정 회장(7.0%)보다 높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서스틴베스트의 권고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써는 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해 확언하기는 이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추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반대 의견을 내며 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다.

/정소라기자

LG유플러스, 갤럭시S5 출고가 인하

LG유플러스는 11일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출고가를 89만9800원에서 67만9600원으로 20만200원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해당 모델의 출고가를 인하한 SK텔레콤·KT 등 경쟁사와 같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8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최대 공시지원금 25만원을 받아 44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갤럭시S5의 출고가도 89만9800원에서 66만6600원으로 내렸다.

업계에서는 최근 공개된 갤럭시S6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갤럭시S 시리즈의 출고가 조정이 줄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선준기자

SK-SK C&C 합병설 재부상

"규제 피해야 하는데…"

SK와 SK C&C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문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합병할 것이라는 설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11일 업계에서는 SK C&C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거나 SK와 합병을 해야 하는데 이중 합병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그룹은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 SK C&C가 지주사인 SK를 지배하고 SK가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 회장 등 총수 일가의 SK C&C 지분율은 43.6%다. SK C&C의 그룹 내부 거래액은 2013년 기준 954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5%를 차지한다.

총수 일가의 SK C&C 지분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SK C&C는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상장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밑으로 낮추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는 SK와 SK C&C의 합병을 정설로 보고 있다. SK C&C 지분을 매각할 경우 최 회장의 경영권 확보가 불안정해지는 등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 회장이 안정적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합병설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최 회장은 SK C&C 지분을 32.9% 보유하고 있지만 SK 지분율은 0.02%(1만주)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1만1695주)보다 작다. 최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SK C&C를 통해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그룹이 그동안 기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시기가 SK와 SK C&C의 합병으로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고 최 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그의 외아들 정의선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에 성공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게 됐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SK C&C와 SK 지주회사 간 합병이나 지분 처분을 통해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이슈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라며 "SK그룹 입장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든 시행해야 되는 입장이라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sunjun@metroseoul.co.kr

현대제철 임직원이 10일 서초구 내곡동에 소재한 '다니엘 복지원'에서 원생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했다.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화합의 봉사' 스타트

현대제철은 11일 임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봉사제도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올해 봉사단 창단 10년을 맞아 향후 10년의 재도약을 위해 봉사 제도를 개편, 확대하면서 봉사단 리더를 선정했다.

봉사단 리더는 각 사업장과 본부별로 안 명씩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봉사단 리더들은 올 한 해 동안 본부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제철은 특히 2015년을 임직원들이 재미있게 보람을 느끼고, 화합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임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도 의무화했다.

김상규 현대제철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10일 본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킥오프 미팅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은 선택이 아닌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다"며 "봉사단 리더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봉사단 리더들은 이날 서초구 내곡동에 소재한 '다니엘 복지원'에서 계식과 설거지, 운동화 세탁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소리기자 ksround@

KT, 산림청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 알린다

KT는 산림청과 1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산림비전센터에서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KT와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력으로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 기념을 기념해 세계 기네스북 도전을 위한 트리허그 캠페인(3월21일)과 내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3월 25일)를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진철 KT Customer기획본부 본부장은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나무와 숲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KT는 스마트명세서와 같은 그린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기업으로서 나무와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LG유플러스, 'U+Shop' 방문자 4배 증가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샵(U+Shop)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지난해 10월 홈페이지 리뉴얼 뒤 2만5000명에서 10만여명(3월 현재)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용 요금제 출시로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사용편의성 등도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샵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식 온라인몰인 U+Shop의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지난해 10월부터 '유플러스샵 다이렉트(U+Shop Direct)'로 새롭게 리뉴얼했다.

복잡했던 나열식 메뉴로 구성된 종전의 메인 페이지 메뉴를 보기 쉽게 간소화했다. 스마트폰 추천 등 주요 기능과 이벤트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한편, 요금제별 단말 지원금을 비교해 모델별 판매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또 모바일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을 하면 최대 10%의 요금할인을 추가 제공하는 '모바일 다이렉트(Direct)'도 선보였다.

모바일 Direct를 통해 기본료 8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월 10%씩 추가 할인 받아 실제로 5만5800원만 납부하면 된다. LG유플러스는 이 서비스가 지난해 11월 초 출시 때와 비교해 3월 현재 가입자 증가율이 300%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삼성 생활가전사업부, 사물인터넷 기술에 주력

스마트홈 이끌 타이젠 탑재 제품 잇따라 선봬

삼성전자가 스마트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TV 모든 제품에 자체 개발한 타이젠OS를 탑재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프리미엄급 생활가전 신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타이젠을 기반으로 CE 제품 전체가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현되게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스마트싱스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기와 플랫폼 사이에 장벽 없는 연결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스마트싱스의 개방형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집을 모니터 하거나 제어할 수 있게 해는 것이 특징이다. 1000개 이상의 기기와 8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금융·의료·에너지 등 이종사업 간의 협업을 강화한 가전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1월에는 이스라엘의 외료용 센서 개발 벤처기업 얼리센스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얼리센스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아두기만 하면 최적의 기상시간을 제시해주고 수면 중 심장마비와 같은 위험을 미리 경고해주는 센서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자사 가전제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이 타이젠을 탑재한 SUHD TV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미 삼성전자는 IFA2014, CES2015 등 세계적인 가전 전시회에서 가전·모바일 기기는 물론 조명·도어락·온도조절장치·수도밸브·블라인드 등이 자동으로 동작하는 서비스를 시연했다. 또 올해 미국·한국 등 냉난방공조전시회에서는 스마트홈을 지원하는 IoT 기술을 탑재한 에어컨을 선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2015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CE부문 대표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간 중심'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전포했다. 윤 대표는 "IoT 제품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TV는 오는 2017년, 나머지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은 2020년까지 100% IoT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비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삼성전자는 올해 타이젠을 본격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그러나 타이젠은 아직 경쟁사의 OS에 비해 특장이나 경쟁력이 뚜렷하지 않다.

한편 IT평론가는 "타이젠은 한 가지 플랫폼에서라도 경쟁사를 압도할 만한 사용자 경험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스마트폰·태블릿이 아닌 삼성이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쉽게 따지할 수 있는 제품(세탁기 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혜인 기자 hjjung0404@metroseoul.co.kr

대유위니아 가전 3사 중 소비전력량 가장 높아

제품별 최대 60% 차이

시중에 판매되는 4도어 냉장고 가운데 대유위니아 제품의 소비전력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이를 걱정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4도어 냉장고 3개 제품에 대한 성능 비교 시험 결과 제품별 월간소비전력량은 최대 26.6㎾h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 지펠 T9000(RF90H9012XP), LG전자 디오스 V9100(R-F915VBSR), 대유위니아 프라우드(RE944EKSSUW) 이다.

조사 대상 중 대유위니아 제품이 주위 온도가 32도일 때 한 달에 70㎾h의 전력을 사용한 반면 삼성전자 제품은 43.4㎾h의 전력만 사용했다. LG전자 제품은 두 제품의 중간인 51.4㎾h의 전력을 소모했다. 에너지이용관리회(?)에너지 전기요금이 1㎾h당 160원만 점을 감안하면 대유위니아 제품이 삼성전자 제품보다 한 달에 4200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요금은 누진제 적용 여부나 냉장고 문 개폐 등 소비 환경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유위니아-삼성전자-LG전자 냉장고.

소음은 전 제품이 40~41 데시벨로 모두 조용한 편이었다. 과일이나 채소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습도 유지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제품의 보습률이 94%로 LG전자(89%), 대유위니아(88%) 제품보다 높았다.

또 냉각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냉장실과 냉동실 모두 나머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 냉장고를 조기 동작시켰을 때 냉각속도가 빠른 제품이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평가 결과 냉장실의 경우 삼성전자는 57분, LG전자는 1시간14분, 대유위니아는 1시간39분을 기록했다. 냉동실은 삼성전자가 1시간42분, LG전자가 2시간36분, 대유위니아가 2시간53분의 냉각속도를 보였다.

제품 가격은 대유위니아(267만5000원), 삼성전자(334만원), LG전자(342만5000원) 순이다.

/정혜인 기자 yujin@

삼성 '상생협력데이' 개최

삼성전자가 11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협의회(이하 협성회)와 함께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2015년 상생협력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는 혁신 활동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29개 협력사에 대한 시상과 함께 '협력사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도 마련됐다.

권오현 부회장은 "전 부문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이어가자"며 "협력사와 삼성이 지속 성장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협력사 혁신 우수사례 대상은 스마트폰용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개발한 '크레신'이 차지했다. 이외에 금상 2개사, 은상 2개사, 동상 3개사, 혁신 우수상 21개사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 업체인 크레신은 잡음을 줄여주는 헤드셋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의 제조공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 갤럭시 시리즈용 헤드셋 등의 생산 효율을 향상시켰다.

삼성전자는 총 29개 수상 업체에 대한 상금 총 2억85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영재 협성회 회장(대덕전자 대표) 등 187개사 대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이상훈 사장, 삼성디스플레이 박동건 사장이 참석했다.

/김성훈 기자

LG싸이킹, 9년 연속 청소기 브랜드파워 1위

LG전자는 자사 진공청소기 'LG싸이킹'(사진)이 2015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청소기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브랜드파워 1위에 오른 LG싸이킹은 올해로 청소기 부문 9년 연속 1위 기록을 이어갔다.

이 같은 결과는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 '사용자를 스스로 따라다니는 청소기', '선이 없는 청소기' 등 티시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청소기를 공급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올해 선이 없는 청소기를 통해 LG싸이킹의 브랜드파워를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출시한 무선 진공청소기 대표제품인 'LG 코드제로 싸이킹'은 선이 없는 청소기로 스마트 인버터 모터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접목돼 청소를 하는 동안 강한 흡입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4시간 충전으로 싱 보드 기준 최대 17분간 청소가 가능하도록 배터리 효율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정혜인 기자

삼성전자, 그릴 키운 스마트오븐 신모델 출시 삼성전자 모델이 11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동 프리미엄 쇼룸에서 삼성 스마트오븐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히터 배열 구조를 개선해 기존 제품보다 열 반출 면적을 넓힌 '와이드 듀얼 그릴'을 채택한 스마트오븐 신모델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신격호·이재현 사내이사 재선임 논란

유통 주총, 총수 과도 겸직, 오너리스크 등 논란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3월 유통업계 주주총회 일정

날짜	기업
13일	LG생활건강, 빙그레,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illegible]
20일	BYC, CJ, CJ씨푸드, CJ제일제당, BGF리테일, GS리테일, LF, [illegible], 농심, 대상, 대상홀딩스,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삼양사,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인터파크, 크라운제과, 한국화장품, [illegible], 현대백화점
25일	샘표식품
27일	LS네트웍스, 남양유업, [illegible], 신세계푸드?, [illegible],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28일	[illegible]
30일	[illegible]

유통업계의 올해 주총에서 총수의 과도한 사내 이사직 겸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롯데쇼핑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쇼핑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관심사다.

대신경제연구소와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주주총회 안건 전문 분석 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롯데쇼핑 주주들에게 신 총괄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것을 권고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올해 93세의 신 총괄회장의 롯데쇼핑사내이사 재선임건은 과도한 겸임과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 측도 "신 총괄 회장이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회사의 기타 비상무이사 회사와 롯데제과 등 3개 계열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어 겸임과다에 해당한다"며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특히 신 총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등과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의 이력이 있다. 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에 계열회사인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을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 신 총괄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는 경우 사내이사의 60%가 최대주주의 친족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중이어서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CJ,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의 이사직에 올라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재현 회장은 11일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외부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70~80kg에 달한 몸무게가 50kg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과 불면도 겪고 있다고 한다.

손경식 CJ 사내이사 후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CJ 오너 일가는 1997년 CJ의 리픽싱옵션부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고 1998년과 1999년 2번에 걸쳐 유무상증자를 한 뒤 행사가가 떨어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지분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당 주식 거래를 했다. 당시 손경식 후보는 제일제당(현 CJ)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손경식 후보가 선임되면 최대주주와 총수 일가가 사내이사의 50%를 차지하게 돼 이사회의 독립성이 낮아질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지나친 겸임도 도마에 올랐다. 서스틴베스트 측은 "서 회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대표이사,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등 계열사 2곳의 사내이사, 대한화장품협회 등기이사도 맡아 사내이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채신화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유통가, 올해 신사업 전쟁 예고

유통업계의 올해 주총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정관에 새 사업목적 추가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는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을 통해 △골프장운영업·수영장·고급 사우나업 △스파 서비스업 △음식점업과 음식료 제조·판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신세계가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동력으로 삼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레저 산업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백화점은 △미술관운영업 △부동산개발업 △평생교육업 △의료기기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회사 측은 "올해 8월 오픈 예정인 판교점내 어린이 미술관 운영과 영위중인 기존사업의 보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은 △수목피해 진단·처방·치유(방제 포함)사업 △도시림 등 조성 관련 수목 등의 식재와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회사 측은 "조경관리사업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부동산 임대·매매·개발 및 건설업 △관광업·호텔운영업 △잡화 및 생활필수품 제조·판매·중개업 및 수출입업 △브랜드 및 상품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시계 및 액세서리 제조·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등을 추가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사업영역확대의 일환으로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에 더했다.

가구 업체인 현대리바트는 △완구류 제조·판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했다. 키즈 판매제품 확대·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가구 개발과 판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샘은 목재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목재수입유통업을 사업에 추가했다. 행남자기는 △의료기기업 △화장품업을 사업목적에 더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사업목적 추가 현황

기업	추가 사업목적
신세계(신세계건설)	골프장운영업·수영장·고급 사우나업, 스파 서비스업, 음식점업과 음식료 제조·판매업, 스포츠 서비스업
현대백화점	미술관운영업, 부동산개발업, 평생교육업, 의료기기 판매업
제일모직	수목피해 진단·처방·치유(방제 포함)사업, 도시림 등 조성 관련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사업
신세계인터내셔날	사무지원 서비스업
행남자기	의료기기업, 화장품업
현대리바트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한샘	목재수입유통업

전 공정위 부위원장, 신세계 사외이사로

CJ오쇼핑, 검찰 총장 출신 사외이사 영입

기업	사외이사 후보	주요경력
신세계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마트	박재영, 김성준, 전형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지방국세청장
AK홀딩스	정주택	의정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현대백화점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
GS홈쇼핑	구희권	국세청 차장
CJ오쇼핑	김종빈, 김재천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전지방국세청장
현대홈쇼핑	이창세, 최항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 서울시 기획조정실 실장
신세계인터내셔날	김문수, 손건익, 정진영	국세청 차장, 보건복지부 차관,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제일모직	이대익	KCC인재개발원장
LF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유통업계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부 부처와 법조계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를 무더기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회 감시보다 로비 청탁을 위한 창구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손인옥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로 올렸다. 손 고문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했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관련 지분 신청에서 법률자문을 한 바 있다. 이마트는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사외이사 신규선임 후보로,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 명단에 올렸다.

AK홀딩스는 정주택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정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같은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현대백화점은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출신 김형균 청솔세무회계 사무소 대표를 사외이사 명단에 올렸다.

GS홈쇼핑은 국세청 차장 출신 구희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이창세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최항도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도 사외이사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J오쇼핑은 검찰총장 출신의 김종빈 화우 고문변호사,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 재선임 명단에 올랐다.

현대홈쇼핑은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창세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최항도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사외이사 명단에 추천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정진영 전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사외이사 신규선임 명단에 올렸다.

LF는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윤용로 현 외환은행 나눔재단 이사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제일모직은 이대익 KCC인재개발원장을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사장이 KCC 부사장 직함을 달고서 2대 주주(10.19%)로 있는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면 이른바 '5% 룰'을 위반하게 된다. 그는 최근 KCC 임원직을 자진 사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권력기관 사외이사 선임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영입 경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기업과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

"맥주는 역시 카스"…오비맥주, 점유율 64%

악성 루머·클라우드 공세에도 1년새 3%p 성장

오비맥주의 정통 독일식 몰트맥주 '더 프리미어 OB' 출시행사 /뉴스1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클라우드의 공세와 카스 악취 루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장조사 전문기관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오비맥주의 지난해 맥주시장 점유율은 64%로 전년(61%) 보다 약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위인 하이트진로는 2013년 39%에서 지난해 33%로 6% 하락했다. 지난해 4월 클라우드를 출시하며 맥주시장에 진출한 롯데주류는 3%를 기록해 시장안착에 성공했다. 하이트진로의 점유율이 각각 오비맥주와 롯데주류로 3%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오비맥주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카스의 1위 자리가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대형마트가 집계한 가정용 국내 맥주 판매 구성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오비맥주 카스는 56.9%를 기록했지만 2013년(12월) 대비 무려 15.56%포인트 추락했다. 반면 이 기간 롯데주류 클라우드가 6.1%까지 치고 올라왔고 하이트맥주는 2013년 대비 6.85%포인트 오른 35.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B편의점에서도 롯데(클라우드)는 12.7%포인트까지 올라서며 10%를 넘어선 반면 오비맥주는 2013년 대비 23.75%포인트 빠지며 56%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맥주는 60.85%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정용 시장과 생맥주 업소 시장을 합친 전체 점유율에서 카스는 60%대를 기록하면서 2위 하이트진로와 3위 롯데주류와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

실제 유흥용과 가정용이 50대 50이고, 마트가 가정용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마트는 전체 맥주 시장의 10% 정도라 전체로 봤을 땐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다.

또 롯데주류가 맥주 1공장에서 라인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연간 10만㎘로 생산 능력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물량 면에서는 오비와 하이트진로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맥주 2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2017년 연간 30만㎘의 맥주 생산 능력을 갖춰야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맥주 업계 관계자는 "롯데주류가 소주를 팔던 영업 네트워크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스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비맥주의 경우 글로벌 본사 CEO가 대표로 선임된 만큼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올 봄 오렌지썸 '립퀴드' 립이 뜬다

LG생활건강의 색조사업부문 더컬러랩은 립퀴드 제형의 립 제품에 주목,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립퀴드는 젝싱 타입의 틴트이드 립 제형으로 립스틱의 생생한 발색력과 립글로스의 빈짝이는 광택감, 립틴트의 탁월한 지속력을 녹여낸 신제형이다.

또 올 봄·여름 트렌드 컬러로 만다린 오렌지 컬러인 '오렌지썸', 살구빛 핑크인 '사쿠라', 선명한 스트로베리 핑크인 '베이베리'를 제안한다.

LG생활건강이 출시한 립퀴드 제형 대표제품은 '보브 수퍼 피팅 립퀴드'다. 이 제품은 립스틱 특유의 답답함과 틴트의 끈적임을 없애 안 바른 듯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 장점이다. 립스틱의 고발색 효과는 그대로 살렸다. 유행컬러인 샤핑크 컬러와 푸지아 계열의 핑크스터, 오렌지 계열의 만다린가든 등 일곱 가지 봄 컬러로 출시됐다.

이와 함께 선보인 '코드 글로컬러 L. 더블 립퀴드'는 립스틱의 생생한 컬러감을 표현하면서도 25% 이상 수분을 함유한 플루이드 제형이 적용된 제품이다. /김수정기자

"화이트데이, 초콜릿 러스크 선물하세요" 신세계백화점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강남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기존 초콜릿과 캔디가 아닌 유개한 러스크 브랜드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러스크 브랜드는 110년 전통의 일본 과자 브랜드인 '하라다'에서 만든 러스크 ㈜1000년 카스테라 브랜드로 시작한 나가사키도에서 카스테라를 잘라 최적의 구워 초콜릿을 두른 쿠로후네 러스크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CJ그룹, 온라인 화상채팅 방식 채용설명회

CJ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온라인 화상채팅 방식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앞두고 오는 21일 온라인 메신저 '구글 플러스 행아웃'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채팅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인사 담당자가 채용 전형 일정, 계열사 직무 등을 설명한 후 취업 준비생들과 약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 희망자는 1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http://recruit.cj.net)로 신청하면 된다. CJ그룹 채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채용설명회는 구글 행아웃 온에어, 유튜브, 구글 플러스 등으로 실시간 생중계돼 화상채팅에 참여하지 못해도 댓글로 질문하면 인사 담당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잠바주스, 국내산 생딸기로 만든 음료 3종 출시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스무디 브랜드 잠바주스가 봄을 맞아 국내산 생딸기로 만든 음료 3종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제품 3종은 국내산 생딸기를 즉석에서 통째로 갈아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스트로베리 주스'(스몰사이즈 6300원), 딸기와 함께 요거트를 블렌딩해 맛은 물론 영양 밸런스까지 고려한 '스트로베리 요거트'(5800원), 스무디에 그라놀라와 생딸기를 얹은 '스트로베리 타워'(6500원)이다.

요즘은 '크림' 디저트가 대세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냉장 베이커리'

디저트 열풍 속에 '크림' 디저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디저트를 경험할수록 더 담백하고 부드러운 디저트를 찾으며 식음료 업계가 크림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냉장 베이커리에 주목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디저트 브랜드 쁘띠첼은 최근 편의점이나 할인점에서 언제든 디저트 케이크를 사먹을 수 있도록 '쁘띠첼 스윗롤'(사진 아래)을 출시했다. 스윗롤은 신선한 생크림을 촉촉한 빵 시트로 돌돌 말아 한 조각씩 포장한 제품으로 반드시 냉장 보관해 10일의 유통기한 안에 소비되어야 하는 디저트다. 쁘띠첼 측은 "디저트가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은 시대에서 언제 어디서든 신선한 디저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냉장 베이커리에 대한 도전이 불가피 하다"며 "쁘띠첼 스윗롤을 통해 디저트 브랜드로서 라인업을 구축하고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만족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냉장 크림빵을 공수하고 나섰다. 최근 현대백화점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1933년 오픈한 이래 3대째 크림빵만 만들어 온 '핫센도(八天堂)' 크림빵을 유치했다. '차갑게 먹는 빵'이라는 콘셉트로 일본 현지뿐 아니라 국내 일본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어 일본 여행을 가면 꼭 사먹어야 할 빵으로 꼽히는 디저트다.

냉장 베이커리 전문점도 등장했다.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가로수길 인근에 위치한 크림빵 전문점인 '크림비바'는 10도 이하의 냉장 상태에서 24시간 내에 재공되는 신선한 크림빵 8종과 크랜블·슈크림 등을 판매한다.

기존 카페에서도 냉장 베이커리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카페두디트'의 '리얼 커스터드'는 저온숙성한 빵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크림의 당도도 낮아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콩팥, 당뇨병의 동반자로

12일 신장의 날…콩팥에 작용하는 '포시가' 주목

12일은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이다. 콩팥 건강의 중요성과 콩팥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콩팥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은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 다양하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당뇨병은 이제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으로 콩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혈액 속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등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다. 하지만 정상의 35~50% 수준으로 콩팥의 기능이 감소할 때까지 우리 몸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

특히 당뇨병은 콩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당뇨병이 지속되면 신체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신장을 구성하는 기관 중 혈액 여과를 담당하는 사구체 역시 손상을 입는다. 이로 인해 단백뇨가 나타나기도 하고 인공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당뇨병성 신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실제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하는 약 4만명의 환자 가운데 57%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게다가 당뇨병을 동반한 투석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환자보다 사망률이 50% 이상 높다.

다행히 최근에는 콩팥에서 작용하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억제제 '포시가'가 그중 하나다. 콩팥이 노폐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SGLT-2를 통해 포도당을 재흡수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당뇨병 치료제로 SGLT-2를 재흡수하는 과정을 막아 체내에 남아있는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당뇨를 배출시켜 당뇨병을 치료하는 셈이다. 더욱이 포도당 배출로 열량을 낮추는 동시에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이점도 상당하다. 더 이상 당뇨병은 콩팥에 피해를 주는 질환이 아닌 것이다.

/황재용기자

박준뷰티랩, 미용인 인재양성 교육센터 마련

피엔제이가 박준뷰티랩 청담동 신관을 전면 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미용인 인재양성에 앞장섰다.

정부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입미용인 양성프로그램과 재교육 센터, 디자이너 교육은 물론, 실습이 필요한 초급디자이너들에게 최고의 장소인 실습살롱까지 갖췄다. 프로그램은 ▲PJ 베이직 프로그램 ▲입문과정(BEGINNING COURSE) 중급 과정(ADVANCE COURSE) ▲스페셜 프로그램(SPECIAL PROGRAM) 등이다.

PJ 베이직 프로그램은 입문과정으로 펌·드라이·컬러 베이직 커트 등 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편성됐다. 박준뷰티랩 입문과정과 1년 이상 인턴사원 과정, 박준뷰티랩기위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문 과정은 모발생리학과 펌·드라이·컬러의 원리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초코스(Foundation Course), 커트 베이직을 익히는 과정인 베이직 코스(Basic Course), 남성 커트 관련 교육 과정인 클래식 코스(Classic Course), 헤어디자이너로서 역량 강화를 돕는 과정인 최종 코스(Final Course) 등이 있다.

중급 과정에서는 초급 디자이너들이 모인 아카데미 살롱인 PJ뷰티센터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스페셜 프로그램은 미용교육 세미나와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준뷰티랩 교육부로 문의. (070-7603-8855)

/김수정기자

"널뛰는 봄날씨 보양식으로 건강 챙기세요"

강강술래, 갈비탕·육개장 30%할인에 곰탕은 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3월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고객들을 위해 보양식 할인 및 덤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이달 31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육개장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2만9000원, 갈비탕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ml)을 2팩 더 준다.

같은 기간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 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보양식 갈비탕과 육개장 선물세트도 증정한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100% 한우로 우려낸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ml/10팩)는 3만1500원, 중용량박스(500ml/10팩/20인분)는 3만6000원에 각각 약 50% 할인 판매한다.

갈비탕은 부드러운 소갈비에 건강에 좋은 인삼과 홍삼을 넣어 맑고 진한 갈비탕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육개장은 얼큰하고 맛이 진하며 소고기 함량이 10%로 푸짐해 든든한 한끼 식사로 좋다. 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사골에는 단백질과 콜라겐,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기력보충 및 원기회복에 효과적이다.

갈비탕·육개장·곰탕 모두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직접 냄비에 넣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인포그래픽스(www.infographics.com) 제공

국토부 유일호號 곧 출범… 과제 '산적'

전세난 해결, 임대주택 활성화 '발등의 불'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유일호(사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여당의 송곳 검증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마주한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10개월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전세난 해결이 시급하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37주 연속 상승했나 이마저도 매 주 상승폭이 최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4월께 전세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호 후보자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나 전 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며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세난 해결과 연결되는 임대주택 활성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서승환 장관이 지난 1 13대책을 통해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는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행복주택도 사업성 문제와 주민 반대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주택시장의 연쇄적인 부양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나서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토부의 신뢰도 와도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재난해부터 9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논총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차원에서는 입찰담합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합 유도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제를 폐지하고 5년이 지난 입찰담합 사건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등 중복 제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존 제도가 담합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경기뿐 아니라 건설경기도 정거에 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시장 활성화로 주택경기는 숨통이 트였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정체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남광토건과 신일건업에 이어 경남기업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경제전문가에 SOC 등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안다"며 "큰 줄기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면서 건설경기도 끌어올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직원들의 기강 문제와 내부 장악을 위한 인사가 숙제로 꼽히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5820@metroseoul.co.kr

GS건설, 초역세권 '신금호 파크자이' 내달 분양

성동구 금호동 일대 2000여 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한 신금호파크자이를 다음 달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1층 10개동 전체 1156가구 중 8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59~114㎡로 다양한 주택형이 공급되고, 1~20층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5 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 3호선 금호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 북 어디로든 접근이 쉽다.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의 도로망도 갖췄다.

사립초등학교인 동산초교와 바로 접해 있으며, 주변으로 무학중, 금호여중, 광희중, 한양사대부고, 무학여고 등이 밀집했다.

신범철 신금호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신금호파크자이는 기존 금호자이1·2차와 함께 금호동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4월 입주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대우건설, 안전체험실습장 개관 대우건설이 수원 기술연구원에 차별화된 안전체험실습장 '안전느낌공간'을 개관했다. 안전느낌공간에서 직원들이 안전벨트 대달림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현대건설, 창원 감계지구 '힐스테이트2차' 4월 분양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 감계지구 4블록 15로트에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2차를 4월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 147가구 ▲70㎡ 215가구 ▲84㎡ 385가구 ▲101㎡ 89가구 등 총 836가구 규모다.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는 창원최초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인 셉테드(CPTED)를 적용해 안전하게 아이가 함께 자라는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셉테드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 예방기법이다.

공원 같은 아파트를 구현하고자 42%의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단지 내 산책로를 비롯해 유아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마련한다. 또 지상에는 주차장을 없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외관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컬러리스트이자 디자이너인 프랑스의 장 필립 랑클로와 공동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 컬러(Hillstate Art Color) 2기 디자인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에는 평면선택제를 제공, 수요자들이 보다 넓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 자녀들에게 석재를 통해 학습과 감성에 도움을 주는 참의력벽지를 사용하고, 원부 안전을 고려한 둥근 모서리 가구를 배치한다.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4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서울 전세난에 빌라 전성시대

'아파트 전셋값 = 빌라 1채+1억'

최근 천정부지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과 넘치는 재건축 이주 수요로 '서민 주택'으로 불리던 빌라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빌라 매매거래량은 약 5만3000건으로 전년 4만423건보다 1만2500여건 늘었다. 특히 12월에는 아파트 거래건수가 전년동기대비 7.6%포인트 감소한 반면 빌라의 경우 12.1%포인트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밝힌 주택거래량 조사에서도 빌라의 거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할 때 빌라는 4.6%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5.9%까지 올랐다.

KB 부동산 경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입찰된 물건의 낙찰률은 36.81%로 낙찰가율 79.0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낙찰률은 5.07% 올랐고 낙찰가율은 3.39% 증가한 수치다. 수요도 많아지거니와 전보다 높은 금액에 빌라가 낙찰된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전셋값이면 빌라를 사고도 1억원 이상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84㎡ 아파트가 6억~7억4000만원에 거래된 반면 빌라는 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64㎡에서도 아파트가 4억2000만원 선에서 거래됐을 때 빌라는 실거래가 3억원에 그치며 1억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임대주택 매입에 따라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품질에 있어서도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해제구역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저품질 주택을 사는 것은 아니다"며 "철거 후 신축형태로 짓도록 한 뒤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한 점과 주택을 더이상 투자대상으로 보지 않는 젊은 층의 인식도 빌라의 인기에 한 몫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무턱대고 빌라를 매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아파트보다 수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금성이 부족하고 처분 시 감가상각도 큰 편"이라고 말했다.

/김희철기자 kim[illegible]

metro entertainment E

"순수한 마음으로 연기했다"

영화 '순수의 시대' 홍일점 강한나

복잡한 감정 지닌 기녀 열연
배우일지 쓰며 캐릭터 분석
데뷔 늦었다는 생각 안 들어

지난 5일 개봉한 영화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훈)는 조선 초 '왕자의 난'으로 기록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각자 다른 순수를 꿈꿨던 세 남자의 핏빛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세 남자보다 이들 사이에 있는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더 기억에 남는다. 슬픔과 아픔을 지녔지만 복수심과 사랑 앞에서 고뇌하는 기녀 가희다. 복잡한 감정만큼이나 다양한 표정을 지닌 가희를 연기한 이는 신인 배우 강한나(26)다.

강한나는 어린 적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였다. 배우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연기 공부를 하면서부터였다. 희곡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배우의 꿈을 키워왔다. 연기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진학했다.

"연기를 배운다고 해서 모두 다 배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연기를 학문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연기 실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연극 평론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때는 배우라는 삶이 제 성격이나 지향점과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이 있기도 했어요. 저는 소박하고 소소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대중의 시선을 받는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의 소속사(판타지오)를 만났을 때였어요. 2012년에서 2013년 무렵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강한나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3년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서 입고 나온 드레스 때문이었다. 뒷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레스는 '노출', '파격' 등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이슈가 됐다. "그 드레스가 그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의상 디자이너의 진심이 담긴 새롭고 독창적인 드레스였거든요. 그 드레스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싶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워킹 연습도 많이 했는걸요."

자신의 의도에서 벗어난 이슈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속상한 마음이 생겼을 법도 하다. 그러나 강한나는 당당했다. "'노출'이라는 단어와 함께 드레스의 의미가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 연기를 계속한다면 '노출'이 아닌 '연기자'라는 이름표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대로 강한나는 일회성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배우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영화 '동창생' '친구2' '우는 남자', 그리고 드라마 '미스코리아' 등에서 조·단역으로 얼굴을 비쳤다.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순수의 시대'의 가희와 만났다. 배우로서 자신의 진면목을 펼쳐 보일 기회였다.

대학원까지 다니다 배우로 데뷔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강한나의 경력이 흥미로운 이유다. 신인임에도 확고한 연기 철학은 그가 배우로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준다. '순수의 시대'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일일이 배우일지를 쓰면서 캐릭터를 분석했다. "대본이 제일 깨끗했어요(웃음). 처음 대본을 보는 기분이 들도록 깨끗하게 놔뒀거든요. 평소에도 중요한 걸 잊지 않게 메모하는 걸 좋아해요.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것보다도 볼펜으로 직접 쓰는 게 더 좋고요."

전작인 '미스코리아'에서는 중앙대 동기인 이연희와 호흡을 맞췄다. 이번 '순수의 시대'에서는 한 학년 후배였던 강하늘이 상대역이었다. 또래들보다 늦은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강한나는 "조급한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가희를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연기로 쏟아낸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활약으로 배우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디자인/최송이

star bag

암환자 연기 위해 삭발 투혼

배우 김호정이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에서 삭발 투혼을 펼쳤다.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 역을 맡은 그는 촬영 전부터 캐릭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캐릭터 표현을 위해 과감한 삭발 투혼과 혹독한 체중 감량도 마다하지 않았다. 안성기, 김규리와 함께 한 '화장'은 다음달 9일 개봉 예정이다.

대만 라디오 아시아 차트 1위

가수 로이킴이 SBS 드라마 '피노키오' OST로 대만 라디오 음악 순위 프로그램 'Hito 파이형방' 아시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현지 관계자는 "대만이 사랑하는 목소리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라고 전했다.

걸그룹 레드벨벳 새 멤버

걸그룹 레드벨벳이 기존 멤버 슬기, 아이린, 웬디, 조이에 새 멤버 예리를 영입해 오는 18일 새 앨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발표한다. 예리는 2011년 SM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 돼 프리데뷔팀 SM루키즈 멤버로 공개된 바 있다.

로빈훗' 연장 공연 불참

그룹 비스트 양요섭이 개인 공연 일정 때문에 뮤지컬 '로빈훗' 연장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다. '로빈훗'은 연초 흥행에 힘입어 서울 디큐브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내달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연장 공연된다. 양요섭은 초연 당시 등직한 왕으로 성장하는 필립 왕세자로 분해 주목 받았다. 1차 티켓 오픈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뱀파이어' 코드에 꽂힌 문화계

뮤지컬·드라마서 잇따라 소재 활용… "섹시한 느낌 제격"

상상력을 자극하는 뱀파이어가 문화계 주요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는 천재 물리학자 프로페서V가 타임머신을 타고 불멸의 삶을 사는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 뱀파이어가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100분 동안 2명의 배우가 공연을 이끈다. 프로페서V와 드라큘라 백작의 대립이 관전포인트다. 송용진·허규·김호영·서경수는 프로페서V, 고영빈·박영수·이동하·이충주는 드라큘라 백작 역을 맡았다. 특히 허규·박영수는 서경수·이충주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무대에 오른다. 지난 10일부터 백암아트홀에서 공연 중이다.

KBS2 월화극 '블러드'는 생명의 소중함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뱀파이어 외과의사의 성장을 이야기한다. 안재현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따뜻한 뱀파이어 박지상 역을 맡았다. 지진희가 분한 이재욱은 악마적인 본성을 실현하려는 캐릭터다. 선과 악으로 나뉜 두 뱀파이어의 갈등이 재미를 더한다. 기민수 PD는 "피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뱀파이어가 의료 공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뱀파이어는 영생한다. 그들이 생명이 유한한 암 말기 환자를 대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KBS2 새 금요극 '오렌지마말레이드'는 인간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뱀파이어를 조명한다. 극소수인 뱀파이어들의 생존기를 현실감 있게 담을 예정이다. 배우 여진구는 작품에서 엄친아 정재민 역을 맡았다. 뱀파이어 소녀 백마리(설현)를 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밴드 씨엔블루 이종현은 미소년 뱀파이어 한시후 역을 맡았다. 이들의 독특한 삼각 관계가 어떤 케미를 자아낼 지 주목된다. 5월 중 방송된다.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 허규(좌)·박영수 /컴퍼니 클라이맥스 제공

안재현

한 관계자는 "외계인과 뱀파이어는 판타지를 자극하는 소재"라며 "뱀파이어는 세련된 느낌을 준다. 섹시한 주인공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

서프라이즈 멤버 유일 뮤지컬 데뷔

'로기수' 위해 4개월 탭댄스 맹훈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의 리더 유일(사진)이 데뷔 후 처음 뮤지컬 무대에 오른다.

유일은 뮤지컬 '로기수'에서 로기수 역을 맡았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미국을 경멸하는 북한군 포로 소년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탭댄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다.

특히 유일은 공연 시작 4개월 전부터 탭댄스를 배우며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준비했다. 유지컬 데뷔 무대라는 부담보다는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줘 관객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는 각오다.

정인석 프로듀서는 "유일은 연기, 노래, 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엑터테이너"라며 "유일이 가진 장점을 '로기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은 1952년 거제포로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 소년 로기수가 전쟁과 이념 대립을 넘어 꿈을 향해 가는 이야기다. 오는 12일부터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로코'

오지호·강예원 주연 '연애의 맛' 4월 개봉

오지호, 강예원 주연의 영화 '연애의 맛'(감독 김아론)이 4월 중순 개봉을 확정했다.

'연애의 맛'은 겉으로는 멀쩡한 외모와 스펙을 지녔지만 정작 여자 마음은 모르는 산부인과 전문의 왕성기(오지호·사진 왼쪽)와 거침없는 성격을 지닌 비뇨기과 전문의 길신설(강예원·오른쪽)의 이야기를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다.

강예원은 그동안 '해운대' '퀵' '헬로우 고스트' '하모니'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의 '여군특집2'에 출연해 '하모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영화에서는 솔직하고 과감한 연기변신을 선보인다.

방송인 이상벽(왼쪽부터), 가수 윤형주, 조영남, 김세환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2015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 기자간담회에 환하게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오지호는 드라마 '직장의 신' '왕삼의 커플' '내조의 여왕' 등으로 반전 매력을 지닌 친근한 캐릭터를 연기해왔다. '연애의 맛'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코믹한 섹스어필로 관객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쎄시봉 친구들과 떠나는 통기타 여행

송창식 빠지고 조영남 합류…14일부터 전국 투어

쎄시봉 친구들(조영남·윤형주·김세환·이상벽)이 다시 한 번 추억 여행을 떠난다.

'2015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는 오는 14일 성남 아트센터를 시작으로 광주·일산·수원·전주·부산·서울·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차례로 열린다.

지난 2년간 윤형주·김세환·이상벽과 함께 쎄시봉 콘서트를 이끌었던 송창식 대신 조영남이 합류했다.

이상벽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2015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 기자간담회에서 "음악감상실 '쎄시봉'은 당시 어렵게 대학 생활하던 친구들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고향집 같은 곳으로 추억과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번 공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관객들도 각자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공유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세대에겐 쎄시봉 노래가 추억이지만 젊은이들에겐 신곡처럼 들릴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영남·윤형주·김세환은 각자 '딜라일라' '비와 나그네' '사랑하는 마음' 등 히트곡 들은 무대는 물론 1970년대 음악감상실 '쎄시봉'에서 공연했던 올드팝 무대도 준비했다. 또 최근 개봉한 영화 '쎄시봉' OST '백일몽'을 이번 공연에서 라이브로 선보일 계획이다.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 삼아 쎄시봉 공연 진행을 맡았던 이상벽은 기자간담회 내내 10대 소년들처럼 투닥거리던 윤형주와 조영남을 중재하며 50년 우정을 자랑했다.

윤형주는 "(조)영남이 형이 이번 공연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 난 사실 불안하다"며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바로 조영남만의 독특한 무대 매너다. 형의 기이한 발언과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우리가 늘 싸우는 걸 이상하게 보지만 늘 이래서 괜찮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팀이) 깨질 것 만 같다. 송창식이 없으면 더 심하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지민기자 lastkiss@

박세웅 역투·김사연 홈런

'막내' KT 시범경기 첫승…SK 14안타 폭발 한화 완파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 위즈가 11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짜릿한 1-0 승리를 거두고 세 경기 만에 첫 승리를 신고했다.

KT의 선발로 나선 외국인 투수 크리스 옥스프링은 복통 때문에 1이닝만 던지고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강판됐다. 이어 12일 롯데 자이언츠전 선발로 내정됐던 신인 투수 박세웅(20)이 등장했다.

조범현 KT 감독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꼽은 바 있는 박세웅은 시속 145㎞ 내외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가며 5이닝을 3피안타 무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타석에서는 김사연(27)이 웃음을 냈다. 2007년부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에서 신고선수로 지내며 힘겨운 시절을 보낸 김사연은 이날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NC 두 번째 투수 박민석의 4구째 시속 137㎞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다.

11일 오후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KT 시범경기에서 KT 조범현 감독이 NC를 상대로 1-0으로 승리한 뒤 선수들과 하이 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의 시범경기 첫 홈런이다.

조 감독은 경기 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 대처 능력이 나아지고 있다"며 미소지었다.

KIA 타이거즈는 포항 원정에서 브렛 필의 3점 홈런을 앞세워 '디펜딩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를 6-3으로 제압했다.

KIA 선발 양현종은 2이닝 동안 삼진 2개를 뽑으며 무안타로 막았고, 두번째 투수 임준혁은 4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올 시즌 마무리로 낙점된 좌완 심동섭은 9회를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다.

대전에서는 SK 와이번스가 장단 14안타를 몰아쳐 한화 이글스를 8-4로 물리쳤다. 지난해 롯데에서 뛰다 한화로 이적한 4번 유먼은 3⅓이닝 동안 9피안타로 7실점으로 부진했다.

사직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롯데 자이언츠를 2-0으로 꺾었다. 오지환은 8회초 솔로 홈런을 날렸다.

목동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넥센-두산 경기는 한파로 취소됐다. /구단공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1일(한국시간) 열린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에인절스의 시범경기에서 텍사스 3번 지명타자로 출전한 추신수가 1회초 타석에서 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첫 3번타자 시험대

좌완 상대 4타수 1안타 두 타석은 삼진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범경기 첫 3번 타자로 나서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의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시범경기에 3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좌완 투수만 3명을 상대해 2차례 삼진을 당하며 시범경기 타율은 0.250(12타수 3안타)을 유지했다.

지난 5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시범경기 4경기에 출전한 추신수가 3번 타순에 배치되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추신수는 한 경기 뛰고 한 경기 쉬는 방식으로 이번 시범경기를 치르고 있다. 홈경기에서는 우익수, 방문경기에서는 지명 타자로 나섰고, 줄곧 2번 타자에 배치됐다.

하지만 제프 배니스터 감독은 이날 팀의 간판 타자인 애드리안 벨트레, 프린스 필더에게 휴식을 주고 추신수(지명타자), 미치 모어랜드(1루수), 로빈슨 치리노스(중견수)로 중심 타선을 꾸렸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좌완 헥터 산티아고를 상대로 3구째를 밀어쳐 유격수 키를 넘어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연결했다. 이어 두 타석은 삼진을 당했다.

7회초 무사 2루 찬스에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 좌완 호세 알바레스를 상대로 친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남겼다.

텍사스는 4-5로 패해 시범경기 4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김민준기자

호날두 78골…UEFA리그 신기록

레알 마드리드 8강행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샬케04(독일)에 패하고도 8강에 합류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4-2015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샬케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3-4로 졌다.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2골을 폭발, 유럽 클럽대항전 통산 78번째 골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9일 원정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레알 마드리드는 16강 두 경기 합계 5-4로 앞서면서 8강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8강 1차전은 다음 달 15~16일 중 열릴 예정이다.

호날두는 0-1로 뒤지던 전반 25분 토니 크로스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어 전반 45분 파비우 코엔트랑의 크로스를 골지역 오른쪽에서 달려들며 머리로 받아 넣어 헤딩으로만 2골을 뽑아냈다.

이날 2골을 넣은 호날두는 UEFA 주관 클럽대항전에서 통산 78번째 골을 기록, 라울 곤살레스(77골)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76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포르투(포르투갈)는 FC바젤(스위스)과의 홈경기 2차전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둬 합계 5-1로 8강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1일(한국시간) 열린 샬케04(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하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류현진, SD '철완' 실즈와 맞대결

13일 시범경기 출격 이적생 맷 켐프와 대결도 관심

13일(한국시간) 시범경기 첫 선발 등판하는 류현진(28·LA 다저스)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제임스 실즈(34)와 맞대결을 벌인다.

실즈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철완'이다. 지난 9시즌 동안 데뷔 시즌이었던 2006년(124⅔이닝)을 제외하곤 20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11승 이상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 캔자스시티 로열스에서 14승 8패 평균자책점 3.21의 성적을 거두고 팀을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에 올려놨다. 메이저리그 9시즌 동안 통산 114승 90패 평균자책점 3.72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뒤 한동안 행선지를 정하지 못해 애를 태웠던 실즈는 지난달 샌디에이고와 4년 7500만 달러(약 846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안 케네디에 이어 샌디에이고의 2선발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선발 맞대결을 펼칠 류현진과 제임스 실즈

실즈는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선발 등판해 1이닝 동안 안타 1개를 허용했으나 실점 없이 컨디션 조율을 마쳤다.

한편 류현진의 선발 등판 경기는 다저스를 떠나 샌디에이고에 둥지를 튼 '이적생' 맷 켐프와의 맞대결도 예고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민준기자

FC서울 박주영 등번호 91번

국내 K리그로 복귀한 박주영(30·사진)이 11일 FC서울에서 입단식을 가졌다.

박주영은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리그와 FC서울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신 구단 관계자 여러분과 최용수 감독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감독님이 한국에 돌아오도록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보다도 경기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시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영은 기자회견에 앞서 장기주 서울 사장으로부터 등번호 91번의 유니폼을 전달받아 착용했다. /김민준기자

바다 위 빙하가 눈앞에 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빙상경기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경기장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를 모티브로 설계됐다. /연합뉴스

아동 절반 학업 스트레스 '세계 최고'

보사연, 한국 아동의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발표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11일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아동의 주관적인 웰빙(well-being)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와 같은 지표를 국내 아동들에게 적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모두보다 높았다.

또 국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인 33.3%보다 17.2%포인트나 높았으며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16.8%)의 3배였다.

아울러 학교 생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이다. 국내 아동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0개국 중 끝에서 다섯번째인 26위였다. 국내 아동의 만족도(18.5%)는 전체 평균인 26.7%에 한참 못미쳤다.

또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학교 생활 만족도로 국내 아동들의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삶에 대해 중간 이상 만족하는 비율)는 60.3%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황재용기자 hsoul38@

"2018년까지 소음·악취 민원 30% 감축"

서울시가 2018년까지 소음과 악취 민원을 30% 감축하겠다고 서울시의회에 11일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보다 2013년 소음 민원은 73%, 악취 민원은 271% 늘었다.

시는 "소음과 악취, 실내공기질은 시민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연과 생활환경이 어울리는 조용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기업·공공의 역할 실천의지를 담은 소음 관리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2018년까지 환경소음을 3dB 줄이고 소음 민원을 30% 감축하는 동시에 도심 내 소음 없는 휴식공간 300곳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대형공사장 근처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소음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형공사장에 소음 저감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또 이달 중 생활 악취 민원을 30%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다양한 악취 저감 기술의 실증과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 7월까지 인쇄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조현정기자

선입금·고수익 알바 조심!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직 팁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새내기들을 위한 구직 조언을 1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수익의 함정, 급여는 적정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급여다. 이 때문에 많은 급여를 준다는 곳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유 없이 큰 돈을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직종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알바몬이 무료로 제공하는 알바급여 정보인 '알바비백'을 이용하면 브랜드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급여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채용공고는 다양하게 비교하라

아르바이트 구직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채용공고를 살펴봐야 한다. 다양하게 확인하다 보면 유념하거나 주의해야 할 채용공고가 눈에 보인다. 특히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정도만 노출되는 기업은 주의를 요한다.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서 해당 아르바이트를 미리 경험한 선배들의 후기와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 선금 요구하는 기업은 피하기

돈을 벌기 위해 일정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불법 다단계일 수 있으니 단호히 거절하자.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투자를 권유한다. 나중에 그만두고 싶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금물

아르바이트 지원과정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간혹 통장비밀번호, 통장 원본, 도장, 주민등록증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 이런 경우 구직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각종 범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11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치러졌다. 사진은 시험을 보는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자고등학교 고3 학생들. /연합뉴스

단국대 지식재산 전담 교육 운영

단국대가 11일 죽전캠퍼스에서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운영대학' 지원 협약을 맺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함께 지식재산 전담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특허청의 '제3자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업' 주관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서 5년간 2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2016학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40명을 선발해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또 단국대는 학부-대학원 공동 운영을 위해 우수 학생 선발, 교육 커리큘럼 설계와 교재 개발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은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디자인법 등 지식 재산의 기초가 되는 과목과 기술사업화, 디자인경영, 문화콘텐츠계약 등 다학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조현정기자 jhj@

인사

■헌법재판소

▲ 김리권 1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김혁성 ▲ 이사관(2급) 승진 ▲ 행정관리국장 이규련 ▲ 부이사관(3급) 승진 ▲ 심판사무과장 권득용 ▲ 과장 전보 ▲ 인사관리과장 김기호 ▲ 과장 신규보임 ▲ 심판제도과장 이성환

■신용회복위원회

▲ 임명 ▲사무국장 김복혁

■대신증권

▲ 상무보 신임 ▲ 판교부부문장 한아선

■가톨릭중앙의료원

◇ 가톨릭중앙의료원

▲ 기획예산팀 팀장 박형택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 교무팀 팀장 조양수 ▲ 구매관리팀 팀장 이종기

◇ 서울성모병원

▲ 구매관리팀 팀장 여서현 ▲ 기획팀 팀장 남궁훈 ▲ 연구행정팀 팀장 한정훈 ▲ 임원현 무팀 이순우 ▲ 개원준비팀 팀장 이종수

◇ 여의도성모병원

▲ 건강의무팀 팀장 서경석 ▲ 기획팀 팀장 강동규 ▲ 대외협력팀 팀장 이미관 ▲ 병동간호팀 팀장 주미장 ▲ 시설팀 팀장 김규영 ▲ 인사팀장(겸 총무팀장) 조석우 ▲ 특수간호팀 팀장 노윤지 ▲ 학의협력팀 팀장 최승원

◇ 의정부성모병원

▲ 시설팀 팀장 이구학

■KNN

▲ KNN 사장 최비철 ▲ 경영사업본부 문화사업국장 성현숙 ▲방송본부 보도국장 구본모 ▲ 경남본부 보도국장 이오장 ▲ 경영사업본부 기술국 R&D기술부장 신종식 ▲ 경영사업본부 기술국 제작기술부장 권정학 ▲ 방송본부 보도국 경제부장 송준우 ▲ 방송본부 보도국 정경부장 송원재 ▲ 방송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박일훈 ▲ 방송본부 SNS C? 추종탁

부고

▲ 김호동(전 대전경찰서 공무원)씨 별세, 이우경씨 상부, 김상현(전 방송위원회 부국장) 종헌(전 제천시 행정사무관)·석현(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상무)·봉현(동국대 공과대학 화학과 교수)씨 부친상, 조수선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씨 시부상, 김상열(전 극동건설 상무)씨 장인상 = 10일 오전 7시 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32

▲이재권씨 별세, 선윤한(지엘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씨 장인상 =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목천 공원 묘원 02-2072-2020

▲ 단영현씨 별세, 안종성(의정부시 교보빌딩)씨 부친상 = 10일 오후 2시, 포천 늘사랑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8시 031-534-4401

▲ 강석호씨 별세, 강형석(세계한국TV방송 편성 사무총장) 남익(자영업) 은희(엑스트 인프로건 대표) 숙희(자영업)씨 부친상, 강의구(전 럭키레미코 상무·자영업)씨 장인상 = 10일 오후 4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6905

▲ 박현자씨 별세, 주우식(중앙대 교수)씨 모친상, 이성호 이스트밸리CC 회장 장모상 = 9일 오후 11시 2분,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31-787-1501

▲ 송인자씨 별세, 조성근(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차장)·이상래(기업은행 전 차장) 윤운구(도쿄하자대 교수) 전영욱(삼성SDS 차장)씨 장모상, 변형선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 기자 연수(주식회사 예술단 지사)씨 모친상 = 10일 오후 8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7시 043-263-7211

선거운동 과도한 제한 '숙제'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 제도 개선 시급

11일 전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진행됐다. 80.2%의 잠정 총투표율을 보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 조합은 ▲농협·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총 1326곳이었다. 선거 유권자 229만7075명 가운데 184만3230명이 투표를 했으며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81.7%) ▲수협(79.7%) ▲산림조합(68.3%) 등이었다.

사상 첫 동시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투표 시작 전부터 조합원들이 투표소에 몰리는 등 이날 하루 전국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또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선거제도가 기존 방식보다 일정 부분 투명성은 확보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전히 돈봉투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가 다수 포착됐다. 선관위의 강한 규제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은 앞으로 숙제로 남았다.

실제로 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 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 이첩, 52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위반 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의 위반수준과 같았고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토론회나 합동 연설회 모두가 금지돼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다가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이 4년 후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가입을 구체화하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관위와 검·경 등의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울기자 hyeul38@metroseoul.co.kr

금연광고 버스 등장 경남 밀양시보건소가 12일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6대 차체 외부에 금연광고를 부착한다. /연합뉴스

점심시간 음식점 밀집지 주차 'OK'

내달부터 … 휴일 공원·체육시설 주변 주차규제 완화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 경찰서별로 규제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받은 후 다음 달 중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의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규제 개선 TF에서 주차 허용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 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주말·공휴일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 구간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야간 심야시간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긴급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허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영장실질심사 받는 도곡동 살해 피의자 도곡동 9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11일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여승무원' 美법원에 조현아 제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퀸스 고등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법 법원에서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박 사무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다.

/양소리기자 Ifor.sunall@

"롯데야구단 CCTV로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맞는 제별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롯데 구단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경기 때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운영매니저가 CCTV 확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교육부, 교복 상한가 권고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상한가격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발송한 공문에서 교복의 상한가격으로 동복 20만4316원을, 하복 8만2572원을 각각 제시했다.

적용 시기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상한가격은 지난해 전국 교복 공동구매 평균 가격에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9%)를 반영해 산출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제시 가격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적용할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주관구매제는 중·고등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조현정기자